

'화이팅' 천태불자 화합 한마당

상월 대조사 旗 전국청년회 배구대회 현장 취재

"자 화이팅!" 힘찬 화이팅을 외친 이흥명의 선수들은 코트에 들어서자 허리를 구부리고 오직 하얀 배구공에만 집중한다. 그 순간 어김없이 서어브가 넘어오며 순식간에 송곳같은 강한 속구이 상대편의 코트에 내리쬐인다.

선수들은 경중경중 뛰어오르며 응원석에서는 하늘을 찌를

만큼 맞는 기쁨과 함께 치러지는 한편 지난해와는 달리 한국배구협회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배구대회의 수준이 더욱 격상돼 연인과 규모를 과시했다.

김도용 중정선임을 비롯 구천서·송광호 국회의원과 등 2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체육부위원장 격려사

경기마다 2천여명의 불자들이 열광시켰다.

박진감 넘치는 배구경기가 이어지는동안 한편에서는 즐기기에도 이어졌다. 비자빚을 흔들면서 '영차 영차'를 목청껏 외치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진지하다 못해 필사적이다.

첫번째 줄다리기 경기에서 실패한 서울 성광사 청년회원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 마지막 기회야, 심판의 시작소리와 함

께 초반승부를 넘시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승리를 향한 힘찬 화이팅을 외치고 경기에 임한다.

이렇게 모든 경기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각 사찰의 응원단은 신명나는 응원을 통해 승패에 관계없이 한마음 한 뜻으로 아웅어진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질 무렵부터는 단축마라톤과 릴레이 경기가 이어졌고 관중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향해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낸다.

원활한 경기의 진행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문수 중앙청년회장은 "배구대회를 계기로 청년회원들간의 화합은 물론 현역배구선수가 참가함으로써 인해 간접적인 포교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펼쳐진 이날 결승전은 정주명장사와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펼친 서울 성광사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하루종일 분위기를 사로잡았던 응원단에는 마산 삼학사 응원단이 응원을 차지했다.

권인사=김중근 기자



◇ 8·15 광복 50주년 맞아 개최된 '제22회 상월대조사기 전국 청년회 배구대회'에서 전국 79개 청년회원들은 한마음으로 우애넘치는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2천여불자 참여 결속다져 지역주민들도 한뜻 동참

듯한 함성과 평과리 징소리가 8월의 하늘로 울려 퍼진다.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8월15일 단양 영춘중학교에서 천태청년불자의 제22회 상월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스포츠헤스 가운데 교계 유일의 대회일뿐 아니라 매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개최되고 있어 대규모 공식 배구대회를 무색케 했다.

특히 이번대회는 광복50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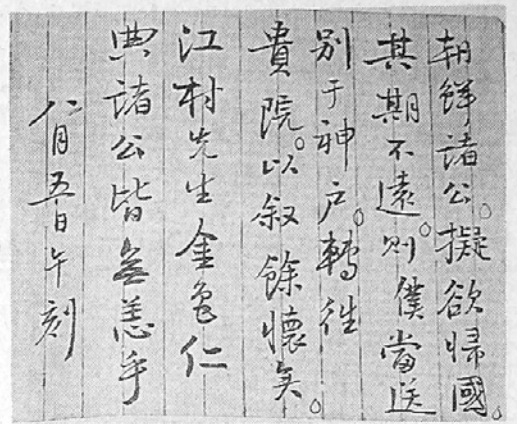
를 통해 "청년들은 종단발전의 씨앗이며 튼튼한 씨앗만이 무성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상월대조사에서 항상 강조하셨다"며 "배구, 줄다리기를 통해 더욱 더 결속력을 다져 수행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79개 청년회가 참석한 이날 배구대회는 A·B조로 나누어 각 청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고려증권·현대·경기대·인하대 등의 기라성같은 현역선수들도 대거 참석, 매

개화승 이동인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광복 50주년을 맞아 BBS, KBS등 방송가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다.

불교방송은 지난 13일부터 5부작으로 '개화승 이동인'(PD 유진화, 매주 일요일 14:00~15:00)을 방송하고 있다. 불교방송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일본에서 이동인스님의 유물을 발견, 그 사본을 공개하여 학계 및 언론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유물은 가로 19.5센치, 세로 14.5센치의 종속황색조신지에 쓰여진 것으로 개화기 연구가인 김익환 선생의 고증으로 제작된 도서목록에 '이동인이 오쿠무라 연심에게 보낸 편지'로 분류, 기재돼 일본 사가현의 고역사에 소장되어 있다. 무불스님 김옥균 박영호 유대치 김장희등개화파 인물들의 친필



◇ 불교방송 '개화승 이동인' 제작팀이 일본 취재중 구주 사가현 고역사에서 발견한 이동인 스님의 친필 유물.

을 방송할 계획이다. 토·일 대사를 새롭게 조명하여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겠다"는 제작의도를 밝혔다.

개화승 이동인 생애 재조명 활발

BBS 5부작 특집 호응...KBS '찬란한 여명' 촬영 격변기 선구자 삼 통해 '역사 바로 보는 눈' 제시

16종 19매도 소장돼 있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유목에는 '강촌선생 김구인'이라는 개화파 인물이 등장해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줬으며 고역사 유물중 무등산 원효사에서 기증했다는 고려초기불상 한점도 발견돼 관심을 끌었다.

불교방송은 이번 일본에서의 이동인스님 활약상을 모은 '이동인스님 일본자료집'을 4책씩 분량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또 한 출판사에서 '세계의 한국인'이라는 어린이 위인전집을 기획하며 제 1권으로 '개화승 이동인'을 다루겠다는 섭외가 불교방송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S-ITV도 내달 30일부터 이동인스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찬란한 여명'(PD 이복영)

또 불교방송의 '개화승 이동인'을 기획하고 자료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김경학 차장은 "개화기의 불교사가 그동안 공백상태였다"며 "총체적인 연구를 통해 조미현의 초약까지 작성했던 이동인 스님을 통해 불교의 시대역할론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인 스님은 박영호 김옥균 등에게 개화 사상을 일깨워 준 개화파의 선구자였다.

이동인 스님은 1881년 미국과의 수호조약체결시 초약을 작성(3항만이 현존하는데 10항에 불교를 지지할것들의 내용이 있다.)했으며 고종 밀명으로 통리기무아문의 참모관으로 일본에 군함을 구하러가다 암살당한 종운의 승려였다.

김원우 기자

이문수 천태종 중앙청년회장

"수준급 대회평가에 긍지느껴"

"매년 펼쳐지는 배구대회는 천태불자들과 스님, 지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화합을 다지는 장입니다."

전국 79개 청년회원을 중심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해온 이문수회장은 배구대회의 의의를 이렇게 말한다.

이회장은 "8·15 광복 50주년을 맞아 오늘 국내 어느 대회보다 손색없는 수준을 갖추게 된 것에 무한한 긍지와 기쁨을 느낍니다"라며 "불법을 널리 알리는 포교적인 측면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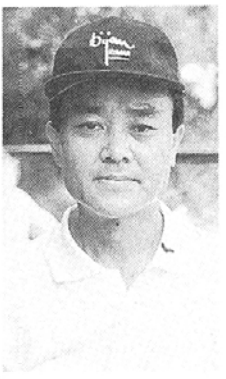
대회 참가한 정의탁 선수

"불심 다지는 값진 기회 됐어요"

"배구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전국 어디든지 가야죠. 오늘처럼 사골학교 모래관에서 펼쳐지는 배구경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로 4번째 삼룡사 선수로 출전하는 정의탁 선수(전 국가대표)의 소감이다.

"사찰을 자주 찾지는 못하지만 제게는 이런 배구대회가 불심을 다지는 값진 기회 됐어요"라고 말하는 정의탁은 "내년 대회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참석하고 싶다"며 밝게 웃는다.



수륙영산대재·예수재 봉행

천태종, 16일부터 5일간

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광복 50주년 기념 호국영령을 위한 수륙영산대재 및 예수재'를 봉행했다.

33번의 타종으로 시작된 이번 영산대재에서 총무원장 전운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을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받들어 봉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전통의식으로 치러진 이날 법회에는 종단 간부스님

을 비롯 전국각발사 신도들이 참석, 유주무주고혼을 천도했다.

법사연수교육 실시

태고종, 설법대회도

태고종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영)은 지난날 29일 1백여명의 협회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35 법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현대불교와 법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다종교 상황에 따른 포교방법론, 신행과 불교의식들이 진

행했다. 한편 이번 연수교육을 계기로 향후 법사단을 조직 사회활동을 개회하는 한편 설법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방송작가세미나 개최

통도사서, 25-26일

조계종 포교원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양산 통도사에서 방송작가 불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교의 생명사상'을 주제로 도법스님(선우도량 대표)이 '경전속에 나타난 생명사상'을 강연한 교수(전북대 철학과)가 '불교문화에 나타난 생명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불방추진위 환관식

불교대구방송추진위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대구 대덕골프장 옆 톨비나유치원에서 환관식 및 개국 설명회를 갖고 대대적인 홍보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btn 자원봉사자 모집

불교텔레비전 기획홍보부에서는 방송출연 업무보조 및 기타사회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이달말까지이며 불교TV본사나 사찰총무소에서 지원서를 교부한다. 지원서접수는 3270-3346-8

"토지라는 것은 정말 나위 없이 귀중한 자산이며,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는게 인간의 임무이며 행복이기도 하다. 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과 미(美)와 영속성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제4의 목표로 불과한 생산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영국의 경제사상가 E.F 슈미어의 말이다. 금정산 법어사 초입에 건축중인(일시 공사중단) 16~18층 규모의 아파트를 놓고 법어사와 경동건설 양사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 공방을 슈미어의 말을 곱씹으며

한번 생각해 보자. 금정산이 부산의 진산이며 4백만 시민의 휴식처라는데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휴일이면 수만 시민들이 금정산 자락자

락에 몸을 맡기고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건강을 금정산에서 찾고자 한다. 컴퓨터로 합성된 사진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18층 규모의

고층아파트가 금정산을 가로막아 살진 금정산의 곡선과 인공물의 직선이 연출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 그 부조화에 경탄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또 '환경영향평가'라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진단을 털끝만금도 몰라도, 6백12세대

가 살아갈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선 금정산이 언제까지나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턱없는 욕심 아니겠는가.

금정산의 건강미

이문추구해 받았으로 전력 투구하는 현대인에게 슈미어의 세가지 조건을 열심으로

따라하고 하면 기업가의 경우 문란한 지름길을 알려주는 일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는 하등 쓸모없는 조건 뿐이기 때문이다.

재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법어사와 경동건설의 맞대결은 결국 앞서 인용한 세가지 목표와 생산성의 싸움에 다를 아니다. 그러나

토지의 건강과 미와 영속성 등 비생산적 가치를 주장하려면 그 주장자의 일관된 가치지향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생산성을 앞세우는 이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출판·편집 안내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인생은 짧고 기록은 영원합니다. 도서출판 사람들은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는 물론 보통사람들의 자서전·회고록·개인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광고를 해 드립니다.

- 자서전 ○ 회고록 ○ 출판대행
- 수필집 ○ 시집 ○ 편집대행

※ 인생 경험과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스님과 불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출판 기획만 원하시는 분, 출판 아이디어나 출판 예정인 원고가 준비된 분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 자세한 문의를 전화 혹은 방문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제작도 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지 2층 선덕빌딩 3층
전화 : (02) 725-6752~4
팩스 : (02) 725-6920

法華經 大講座

(제1기생 모집)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 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이자!
법화경은 중생들에게 보살도를 가르쳐 최고의 행복을 주리니

1. 연구반 30명
2. 통신반 약관명

강주: 법화경의 태두 惠耕 큰스님
기간: '95. 9월 3일부터 6개월간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부터
장소: 무설정사(84번 화계사 중점)
회비: 교재대 포함 20만원(분납 가능)
등록기간: '95. 8월 15일 ~ 8월 30일

주최: 無說精舍 白蓮會
전화: (02) 983-0198
팩스: (02) 982-7598

모시는 인연만으로도 큰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금강경 10폭 병풍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원력병풍 - 금강경 표구비만으로 드리는 추석특별보급으로 가격부담없이 가까이 모실 수 있습니다.

추석 특별보급 50점

▲ 전면: 원력 높으신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금사로 조성하였습니다.
▲ 후면: 林泉가사 진품 불성 연화도

■ 특별보급가 ₩ 490,000 (현금 및 은행 신용카드)

- 규격: 높이: 5자 8치 (약 175.8cm)
- 폭: 14자 (약 424.3cm)
- 재질: 고급스기목/양면 고급비단/소묘사 목후지

구입 문의: 기원 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 수신자 부담)